

사료품질 향상은 정말 불가능한가?

양축가들은 두말할 없이 값싸고
질 좋은 사료를 쓰고 싶다.
효율 높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
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
대는 언제쯤 올 것인가.

김 한 영
(한영농장·경기도 화성군소재)

우리업계에서 흔히들 유류파동 이전의 사료 품질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것이란 말들을 많이합니다. 사료 품질이 전에 비해 많이 저하 되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양축가 입장에서 사료 품질저하는 여러가지로 생각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료효율이 나빠서 생산비가 올라 가는 것이고

둘째는 사료로 부터오는 각종 질병 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니다.

정확히는 모르나 현재 배합사료공장 가동율이 100%나 120%나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한 가동은 양축가에게 사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음은 물론 사육규모의 조절을 하게 되어 축산물 증산이라는 정부시책과도 거리가 멀어지는것 같습니다.

이제 양축가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서 부로일러를 사육해서 몇 kg 팔았는데 그동안 사료는 몇 kg가 소요되어 사료효율은 얼마였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료효율이 나쁠 경우 사료비는 더 많이 지출되어 피해는 양축가만 보게 됩니다.

고효율사료를 만들 경우 사료공장이 그만큼 시설 투자를 줄일수 있습니다.

다만 사료 수송업자 사료지대 제조업자 등의 수익은 적어지게 되겠지요. 특히 지난 여름같이 무더울 땐 주문사료 생각이 절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병 오염문제 인데, 대부분 방역에 신경을 많이쓰는 종계장은 사료문제를 크게 걱정합니다. 깊은 산속 처녀지에 계사를 짓고 사양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사료를 통해 질병이 오염되는 것은 방

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료지대를 재사용하는 사료공장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사료공장 출입구에 소독반이 된 곳은 찾아보기 힘들고 각 농장에 다니는 계분 물은 자동차가 사료공장 창고에서 사료를 적재하는 것을 볼때 양계업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여 줍니다. 더구나 국내 사료로 사용되고 어분, 피혁분 등 단미사료의 위생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본 분들의 말을 들을때 양계업을 영위하기가 점점 불안할 뿐입니다. 한국사료협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조사 연구사업을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사료 위생문제에는 손을 대지 않는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인지 아니면 현 여건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폐사와 생산성 저하는 감히 계산해 보기도 겁이 날 정도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종계가 추백리 검사를

하면 1회 검사때는 양성계가 없다고도 대추기에 가면 몇%씩 양성계가 나오는데 근본 감염경로 등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져야 되겠습니다.

우선 종계를 위한 사료라도 따로 제조해야 되겠다는 것이 양축가의 심정입니다. 종계가 오염되면 실용계의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사료 검사는 성분보다 세균과 독성검사를 위주로 하여 주셨으면 어떨는지요?

양축가가 사료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때 축산물은 증산되어 수출산업으로 까지 발전되었던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료의 품질 개선 없는 축산 발전은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축산 발전의 성패는 사료정책에 있다고 양축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